

치매어르신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최초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4회까지 무료 제공

간협, 정책활동 결과 이뤄낸 성과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치매어르신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돼 등급판정을 받은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 위원회를 11월 6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치매어르신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된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치매어르신(1~5등급)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신규 수급자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금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를 갖는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대한간호협회 가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방문간호 수가 개선방안 등을 적극 건의하며 정책활동에 힘써 온 결과 이뤄졌다. 또한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

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치매가 확인된 노인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원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 장기요양 수가는 전체 평균 11.3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간호는 2.04% 인상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금년보다 0.83%p 인상키로 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돼 왔으나 고려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이번에 인상됐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엄중한 처벌 촉구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간호사 장기자랑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11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간호사들에게 병원행사 장기자랑에서 선정적인 옷차림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38만 간호사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며 "간호사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숭고한 소명을 부여 받은 전문인이라는 사명감으로 환자 곁을 1년 365일 24시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원치 않는 병원 행사에 간호사가 강제 동원되고 선정적인 옷차림까지 강요받은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전문인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마저 없이 높은 근무 강도와 빈번한 초과근무 등을 견뎌온 간호사들을 부적절한 장기자랑 같은 병원 행사에 강제 동원해 온 것은 여성전문직에 대한 비하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는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설립을 준비 중인 '간호사인권센터'를 통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대상 및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 후보 추천 안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대상' 및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분	지원 자격
간호대상	간호사로서 평생을 간호사업에 헌신함으로써 우리나라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올해의 간호인상	간호사로서 2017년 한 해 동안 귀감이 될 만한 선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간호정신을 구현하였거나 사회적으로 간호전문직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한 자

(공통 사항)

- 제출서류
 - 1) 추천서 : 1부
 - 2)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 1부
 - 3) 이력서 : 1부 (개별양식 사용, 사진은 파일 첨부)
 - 4) 기타 공적사실 입증자료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1), 2)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각 시·도간호사회를 통하여 접수
- 지원마감 : 2017년 12월 29일(금),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발표 : 2018년 1월말 예정 (개별 공지)
- 시상 : 2018년 2월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

조혈모세포 기증한 금선영 안동과학대 학생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간호대학생의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안동과학대 간호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금선영 학생이다.

금선영 학생은 지난 2016년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했다. 1년 만에 조직 적합성항원 (HLA)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생명존중의 간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해 용기를 내고 기증을 결정했다. 걱정하는 부모님께서는 시술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설득했다.

금선영 학생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예비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오세정 기자 sjh@

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와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준희 보건교사회장은 "그동안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그 결과 보건교사회의 의견이 모두 반영됐다"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보건교사들의 지지와 격려,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교

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노동당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 "19세 미만에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 환원 - 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교사가 이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해 해당 학생이 사상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생명이 위급

장윤정 듀크대 부교수, 미국 간호학술원 정회원 선정

안전한 온라인 교육환경 구현 ... 사이버 공간 '시민성' 연구 주력

장윤정 미국 듀크대 부교수(사진 오른쪽)가 세계 간호학자들의 최고 영예인 미국간호학술원 정회원(FAAN·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으로 선정됐다.



입회식은 10월 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간호학술원 총회에서 진행됐다. 미국간호학술원은 간호연구·교육·실무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간호사를 엄격히 심사해 정회원을 선정한다. 정회원은 'FAAN'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장윤정 부교수는 교육공학분야 전문가로서 간호교육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수법을 개발 보급하고, 학습자 중심의 안전한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성(cybercivility)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다. 서로 도덕성을 갖추고 전문의료인으로서 상

호작용하며 예의 바른 의사소통과 원활한 팀워크가 이뤄질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장윤정 부교수는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미국간호사로 일하며 건강심리학 석사학위(MS)와 간호교육학 석사학위(MSN)를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PhD), 듀크대에서 간호실무 박사학위(DNP)를 취득했다. 2016년 미국간호교육연맹(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이 수여하는 Academy of Nursing Education Fellow(ANEF)에 한국인 최초로 선정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보건교사, 생명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응급처치 가능

제1형 당뇨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상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노동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 처방을 받은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

